

“民主的이고 謙遜한 자세로 일할 터”

제18대 警友會長에 具弘壹 現 會長 再選



구홍일 경우회장이 당선이 확정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 중구 신당동 소재 도로교통안전공단 7층 대회의실에서 구홍일 회장, 허준영 경찰청장, 최석원 前 경우회장, 이기묵 서울경찰청장과 전국의 대의원 등 전현직 경우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9차 정

이 자리에서 구홍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는 지난해 10월, 여러분들의 壓倒的인 지지를 받아 자랑스러운 大韓民國在鄉 警友會의 中央會長으로 취임한 이래 ‘당당하고 활기찬 警友會’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별로

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최근에는 檢警간의 搜查權 調整을 위해 渾身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역 警察을 側面支援 하기 위해 우리 警友會도 하나가 되어 總力戰을 펼치고 있는데, 경우신문을 搜查權 관련 特輯으로

고 말했다.

또한 허 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발벗고 나서겠다.』며 『얼마전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경찰청장도 참전사실을 확인, 인정권을 가질수 있도록 했고, 금년 말까지는 선배님들이 경찰병원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진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그 동안 20년 이상 재직한 퇴직경찰관으로 제한해 왔던 진료비 감면대상을 6.25 참전경찰관까지 확대하고, 임원비를 30%까지 감면토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50%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석원 前 경우회장도 축사를 통해 『각오를 새롭게 다져 경우회 운영과 對국 민관계, 對現직관계, 對회원 관계에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미아 보호소 설치 등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노력을 보여주자』고 당부했다.

이날 2부 행사에서는 구홍일 現 회장을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재선출한 가운데, 구 회장은 『지난 해 10월에 76%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 주셨고,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지지해 주신 대의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큰 책책으로 알고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 회장은 『지난 7개월간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다니며 현지의 회장님들과 현직 지휘관들을 만났는데,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면서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가장 민주적이고 겸손한 회장으로서 낮은 자리에서 일할 것을 다짐하며, 마스터 플랜을 세워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회장으로 남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민종 서울 서부경우회장은 긴급제안을 통해 『현재 중앙회에서 경찰 창설 이후 최대 숙원사업인 수사권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국의 120만 회원들도 일치단결해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경찰을 사랑하고 아끼는 경찰인들의 서명을 많이 받아 뜻을 널리 알릴 것과, 주요 일간지에 이와 관련된 광고를 게재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고, 참석 대의원들은 만장일치로 檢·警 수사권 분권 관련 결의문 채택 및 서명운동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는 회장 선출에 이어 임후보 등록한 부회장 5명, 이사 11명을 선출하는 한편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과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고 마무리 되었다. (임원 명단 3면)

“수사권 문제는 책임에 따른 권한”으로 許 경찰청장, 대구·전남청 방문시 강조

허준영(許淮榮) 경찰청장은 지난달 13일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검찰이 경찰의 약점을 건드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날 대구지방경찰청을 방문,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수사권 독립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검찰이 경찰의 치부를 건드리는 일이 잦았다는 기자들의 말에 이같이 답한 뒤 “검찰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일본 경찰이 수사권 독립 과정에 많은 희생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통일도 금방 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듯이 이 문제도 (일본 경찰이) 바로 하려다 보니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우리는 과거 50여년간 참는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허 청장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검찰의 과도한 권력은 당연히 견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입을 닫아 버리더라”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에 앞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모교인 경북고등학교를 방문, 일일 명예 교사로 나섰다.

경북고 53회 졸업생인 허 청장은 이날 모교에서 학창시절 은사로 장년퇴임한 이 모(75)씨에게 카네이션과 감사의 선물을 전달한 뒤 후배 학생 1천여명을 대상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내용으로 30여분 간 특강을 했다.

한편 허준영 경찰청장은 지난달 16

발행처 : 大韓民國在鄉警友會
(우 : 100-789)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전 화 : 2234-1881 FAX : 2231-7557
발행인 : 具 弘 壹 편집인 : 玄 誠 一
등록번호 : 문화다05675
1970년 12월 13일 창간

일 전남경찰청에서 가진 기자회견회에서 “5월 민주 영령들의 뜻에 보답하는 것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진작 5.18묘지를 왔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며 “영령 한분 한분의 고귀한 희생과 가족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해서는 “지난해 경찰 순직자가 32명이었다”면서 “열심히 일한 만큼 책임에 상응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소법 개정은 검찰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검찰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믿는다”면서 “경찰이 요구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도 ‘독립’도 아니며 수사를 하는데 있어 ‘법적 인성’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선 안되며 모두 득을 보는 ‘윈-윈’(win-win) 게임이 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청와대에 부담주는 것도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허 청장은 광주지방경찰청 신설에 대해 “지안 수요를 감안, 적극 추진하겠으며 광주지역에 한해 경찰서를 늘리는 것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청 업무보고를 들은 허 청장은 헬기로 해남 땅끝지리대를 방문, 근무 중인 경찰관을 격려했다.

역대 치안총수 간담회 개최



경찰청은 지난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역대 치안총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허준영 경찰청장이 선배 총수들에게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가진 가운데, 역대 총수들은 수사권 조정 등 당면현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참석자, 無順 : 이강학, 이소동, 정상현, 정석모, 최석원, 장일훈, 손달용, 염보현, 유홍수, 안응모, 이해구, 강민창, 이종국, 이인선, 김효은, 김광식)

‘檢·警 수사권 보고서’ 최종회의 결렬 未合意 부분, 兩側 總帥에게 각각 보고

검찰과 경찰은 지난 달 16일 경찰청에서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활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두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양 측은 이날 모임에서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짓기로 하고 협의를 벌였으나 표현 방식과 문구 등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검·경은 18일까지 e-메일을 통해 보고서 합의안 마련을 시도한 뒤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김일수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수사권조정자문위원 3명에게 보고서 작성을 맡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 및 자문위 활동을 둘러싸고 양측의 주장이 모두 담긴 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일수)는 6월

2일 자문위에서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의견이 접근된 부분은 단일안으로 정리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양측 입장을 따로 정리해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게 각각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가능한 의제에는 자문위에서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 19개 항목이, 합의되지 않은 의제에는 형소법 195-196조,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 명문화, 경찰에 대한 징계소추권 신설,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청 설립, 형집행 업무의 경찰 이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관련 檢·警 감정적 표현 자제해야

- 李 총리·책임장관회의서 당부 -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지난달 6일 수사

권 조정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로간에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 수장간의 표현이 거칠어 오히려 각 기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해 “(두 기관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조만간 총리께서 두 분 수장을 초청해 원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 총리가 직접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중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5면 특집
경찰병원이 달라졌다.

檢·警 수사권 分權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합시다

지난 5월 17일 제 29차 정기 총회시 檢·警 수사권 분권을 위한 서명운동을 긴급안전으로 채택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그 취지문과 서명부를 전국 경우회에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래 서명부에 서명 후 취워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6월 3일

발기인·서울서부 경우회장 이민종

절 취 선

연번	성 명	주 소	서 명	비 고

※ 보내실 곳 : 서울 중구 신당동 171번지 도로교통안전공단 신관 4층 대한민국재향경우회